빠른 배송 시대, 느림의 자비 배우는 수행

현불논단



성제 정사
위덕대학교 전법원장

요즘 뉴스를 들여다 보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소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쿠팡을 비롯한 유통업체들의 '로켓배송'은 이제 우리 일상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새벽같이 나와 밤 늦게까지 일하는 기사님들, 점심을 허겁지겁 먹고 물량을 맞추기 위해 쉴 새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분들이 하루하루를 버텨 내고 있다. 누군가의 하루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택배 상자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불교에서는 인과(因果)를 중시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이 원리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도 예외 없이 작동한다. 우리가 누리는 '빠른 배송'의 편리함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수면 부족, 근골격계 질환, 피로 누적이라는 고통 위에 얹힌 결과일 수 있다. 편리함이 커질수록 누군가의 과로는 더 심해지고, 그 구조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그 인과의 고리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택배를 주문하면 기본적으로 4~5일, 길게는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때로는 설렘이기도 했고, 도착한 물건 하나에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2~3일만 늦어도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온다. "왜 이렇게 늦지?", "서비스가 왜 이래?"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기사님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의성 리뷰가 올라오기도 한다.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질수록 물류 노동자들의 삶은 그만큼 더 조여들 수밖에 없다.

편리함 커질수록 물류 노동자 과로 심화
택배 수령은 노동과 공력 함께 받는 일
'빨리' 대신 '느림'으로 타인 아픔 살펴야

실제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분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새벽에 잠깐 졸아도, 그다음 날은 몸이 아니라 인생이 아프더라고요." 단지 피곤한 하루가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는 고통이라는 말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하루는 편리해졌지만 누군가의 하루는 무너지고 있다. 이 구조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자본과 효율이 우선인 시대에 불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고 연기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타인의 고통을 내 일처럼 여기는 수행을 권유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은(施恩)'은 무언가를 베푸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시은은 베푸는 사람의 공덕뿐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의 도리와 절제까지 포함하는 가르침이다. 택배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물건 수령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노동과 공력을 함께 받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남이 지은 선업을 막지 말라. 남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다. 즉, 노동자의 수고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일은 결국 공덕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는 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느림' 속에 있었다. 천천히 호흡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타인을 돌아보라는 가르침. 지금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아간다. 빠름은 때로는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삶이 느려질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 느림 속에서 비로소 타인의 아픔이 보이고 자비가 자란다. '하루 늦게 도착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자비심이 아닐까.

유희 목적으로 생명 소비하지 말아야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얼음판 위 동그란 구멍 안에 낚싯대를 드리운 채 입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한파는 걸림돌일 수 없다. 화천 산천어축제를 찾은 이가 작년 기준으로 180만 명이 훌쩍 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 '축제'라고 불리는 행사가 많아진 가운데 산천어축제는 해마다 100만 명을 크게 웃도는 '밀리언 페스티벌'이 됐다.

산천어는 태백산 동쪽 지역에 서식하는 어류로 화천의 고유종이 아니다. 축제에서 만나는 산천어는 전국 각지의 양식장에서 축제를 위해 길러지고 축제 무렵 운송돼 온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축제를 만들면서 강원도라는 지리적 특징과 계곡에 서식하는 어류인 산천어의 조합이 축제로 거듭난 것이다. 더구나 화천은 화천천 주변으로 고지대 골짜기에서 부는 된바람이 워낙 차서 두꺼운 얼음이 안정적으로 얼며 얼음낚시가 축제의 메인 테마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상승 중이다. 폭우가 쏟아져 얼음낚시가 무산된 적도 몇 번 있었다.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 축제일 수 있을까?

산천어축제가 마냥 반가울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유희의 목적으로 생명을 대상화하는 것은 곧 생명 경시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스포츠로 소비하는 경험은 타자의 고통에 무감해질 수 있다. 혹자는 "그렇다면 고기도, 풀도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극단적이라고 하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행위와 유희는 구분해야 마땅하다.

산천어축제 유희로 물고기 고통 무감해져
EU, 어류 불필요한 고통 방지 조치 시행
동물 축제 지침 공개로 동물 고통 막아야

태어난 모든 생명은 누군가의 생명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닌다. 산천어는 화천 고유종이 아니기에 축제 기간 제공되는 산천어 가운데 일부가 방류됐을 경우 생태계에 교란종이 될 우려가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최근에 양식산 산천어가 전국의 산간 계곡에 방류돼 자연 번식하면서 생태계를 위협하는 어종이 됐다. 축제 이후 상처 입거나 죽은 산천어가 장기간 물속에 잔류할 경우 대장균이나 비브리오균 등 병원성 미생물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축제 기간을 위해 각지에서 양식된 산천어를 화천으로 실어 오는 운송 과정에 산천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얼음낚시에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에 투입되기 전까지 산천어는 강제로 절식을 당한다고 한다. 흔히들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우리와 통증을 느끼는 방법이 다를 뿐 모두 고통을 느낀다고 과학자들은 일갈한다.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서에는 어류를 감각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양식업자에게 어류의 복지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고통이나 고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비판의 목소리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 '동물이용 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여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길 촉구한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타자의 생명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유희의 목적으로 생명을 소비하는 행위는 적어도 멈춰야 한다.

社 說

청년을 '불교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불교계는 그동안 청년들의 삶을 위로하고 마음의 쉼을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청년템플스테이, 대학생을 위한 청년밥심,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나는 절로' 등은 청년들이 사찰을 찾고 불교를 친숙하게 여기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고통의 깊이와 양상을 고려할 때, 위로와 체험 중심의 일회성 프로그램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청년의 불안과 좌절은 개인의 마음가짐이나 노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취업과 주거의 불안, 불안정한 노동, 단절된 공동체 속에서 청년의 고통은 점점 만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고(苦)'의 영역에 이르렀다.

청년 문제, 개인 아닌 '사회적 고(苦)' 영역
불교 종책 수립 주체 '청년 거버넌스' 환영

지난 1월 27일 열린 '불교, 청년의 고통에 답하다'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불교적 관점에서 정면으로 마주한 자리였다. 발제자들은 오늘날 청년 문제가 교육-취업-결혼-출산-주거-노후라는 '표준적 생애 경로'가 무너진 사회 구조 속에서 빚어진 결과임을 짚었다. 그리고 획일화된 기준으로만 접근해 온 기존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동안 불교계의 청년 종책과 프로그램은 청년을 '참여자' 혹은 '방문자'로 설정해 왔다. 사찰을 찾아 프로그램에 참여해 위로를 받은 뒤 일상으로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청년은 여전히 수동적 존재로 머물러 있다. 이는 청년이 실제 종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서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이명호 인드라망연구소장은 발제에서 "조계종의 청년 프로그램은 청년 고통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획되고 기능하고 있지만, 그 고통이 생성되는 구조적 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조계종 포교부가 제안한 '청년 거버넌스 구축'은 주목할 만하다. 청년을 포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종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포교부는 종단 청년 포교 사업의 실행 과제로 주체성 강화와 사찰 유휴 공간 개방, 청년 활동가 육성을 제시하고 '사회적 전법'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단순히 대학 불교학생회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신행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쟁에 지친 청년들이 사찰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불교적 화쟁의 지혜로 응답하는 실천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이 불교 종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서야 한다. 청년 문제는 곧 불교의 미래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청년의 고통을 '사회적 고'로 인식할 때, 불교는 사회 구조와 문명을 성찰하고 전환하는 역할을 실천할 수 있다.

청년은 우리 사회와 종교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가장 정직한 척도다. 청년이 떠나는 불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불교로 나아갈 때 불교는 다시 사회의 고통에 응답하는 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2월 4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2월 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2월 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명불사
- 주 지 : 현심 스님 (속명 : 손영기)
-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용강길 195-26 (매룡동)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